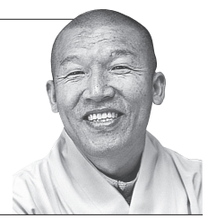
| 현불 논단 |

무엇을 바꾸고 지킬 것인가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열반경〉 부처님 마지막 말씀인
"모두 변하니 끊임없이 정진하라"
'깨어있는 삶 살라' 경책 다가와

변화않는 '타임캡슐 인생'도 있어
정해진 기준에 머물며 안주하거나
얄팍한 경험으로 모든 것을 규정

모두 독불장군적 독선에 가득 차
무엇 지키고 바꿀지 생각해보길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기를

불자들과 경전을 함께 읽고 공부하는 시간이면 어느 경전인들 가슴에 사무치지 않겠는가만은 특히 〈열반경〉을 공부하는 시간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이 정말 가까이 느껴지곤 한다. 경전에서 전해지는 당신의 한 동작 동작들이 눈에 선하고, 법문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들리는 듯 또렷하다. 온전히 부처님이 실재하시는 법석에 함께하는 듯 가슴 벅찬 감사함에 흠뻑 젖어들곤 한다. 경전공부를 하면서 얻는 큰 기쁨의 하나가 그 법석에 함께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열반경〉의 부처님 마지막 말씀이신 "만들어진 것은 모두 변한다. 게으름 없이 열심히 정진하여 수행을 완성하라"는 가르침은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따끔한 경책으로 오랫동안 가슴에 지니고 있는 말씀이다.

깨어있는 삶이란 고정관념이나 틀에 박힌 생활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 당신께서 사시던 시대에도 가장 혁신적인 사상과 종교였고 그 대중들의 수행과 삶의 방식 또한 그러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의 세월이 지난 현대사회에서도 그 혁신적인 면모는 조금도 빛바래지 않고 있다. 인류역사상 최상의 깨달음과 최고의 가르침의 자리는 불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불자들을 포함한 적지 않은 현대인들이 불교와 불교의 가르침이 오래 묵은 진부한 종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와 역사를 떠나 언제나 그 혁신성을 잃지 않고 있지만 현시대를 살아가는 불교 의례의식과 오랜 세월 이어온 불교의 역사와 문화는 다소 낡고 새롭지 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살아 숨 쉬는 삶은 역동적이며 변화와 환경에 잘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삶이 불교적인 것이며 깨어있는 것이다. 하지만 '타임캡슐(time capsule, 그 시대를 대표하는 기록이나 물건을 담아서 후세에 온전히 전할 목적으로 고안한 용기. 대개 땅속에 묻어 둔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삶에서 어느 순간을 딱 정해서 기준으로 삼고 그 시점에 머물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은 "저는 먹어 본 음식만 먹어요"라는 사람이 있다. 미루어 짐작컨대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그 기준이 아닐까 싶다. 평생 그렇게 그런 틀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며 자신의 얄팍한 경험에 세상 모든 일들을 구겨 넣으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도 타임캡슐 인생의 대표적인 부류라고 생각된다.

이에 반해서 개인이나 조직이 쌓아온 경험이나 노하우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다. 독불장군적인 독선에 빠진 사람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으로 〈열반경〉에는 쇠망하지 않는 법에 대해 부처님은 설하고 있다.

"아난다여! 그와 같이 밧지 족이 이미 정해지지 않은 것을 새로 정하거나, 반대로 이미 정해진 것은 깨뜨리지 않고, 과거에 정해진 옛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아난다여! 밧지 족에게는 번영이 기대될 뿐 쇠망은 없을 것이니라."

원칙과 기준이 되는 계율과 행동지침은 변하지 않도록 반드시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현실의 소소한 일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원칙에 적응하면 되는 것이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혼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해가 바뀌고 세월이 익을수록 더욱 제대로 보아야 한다.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社 說

태고종, 정상화 첫 발에 박수를

지난 1년간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을 중심으로 촉발된 종단 내홍이 새해를 앞두고 극적으로 수습됐다.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당선된 지 반년 만에 총무원 청사에 정식으로 진입하고, 제15대 중앙종회가 구성돼 정기회의를 개원한 날 이뤄진 일이어서 의미가 크다.

태고종은 2015년 폭력이 발생한 분규사태 이후 현재까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5년 당시 폭력에 연루된 스님들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았고, 2017년 편백운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대중의 기대를 모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다. 2018년부터 태고종 안팎에서 편백운 스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중앙종회와 마찰을 빚었다. 급기야 전국종무원장협의회까지 나서 집행부의 삼보정재 사용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편백운 스님은 자신을 향한 비판 여론에 등을 돌린 채 올해 신년사에서 종단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 중앙종회 권력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종단 내홍은 가속화됐다.

결국 불신임 이후 새 총무원장 호명 스님과도 관계가 악화된 편백운 스님은 뒤늦게 방하착을 택했다.

이제 태고종은 5년간의 내홍을 뒤로하고 일신에 나설 때다. 5번째로 밀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의전 순서가 현재 태고종의 위상을 대변한다. 올해 새로 출범한 제27대 총무원 집행부와 제15대 중앙종회가 최전선에 나서 종단 위상을 끌어올리는 데 매진해야 한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새 봄을 맞이한 태고종의 정상화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2019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올 한해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진 해로 평가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계종이 추진하는 '백만원력 결집불사'다.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4월 17일 서울 조계사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단순히 수행과 보시를 넘어 불교의 미래를 사부대중의 손으로 직접 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불사 추진 이후 서울을 비롯해 전국 교구본사에서 대대적인 모연운동이 전개됐으며, 37년 도반인 설매 · 연취 보살이 부다가야 사찰 건립기금 50억 원을 희사하기로 해 화제가 됐다.

하반기 이슈 중 하나는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이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성곡 · 호산 · 무연 · 심우 · 진각 · 도림 · 인산 스님은 상월선원이라고 명명된 비닐하우스 선원에서 11월 11일부터 동안거 정진에 들어갔다. 한달여 지난 현재 상월선원은 9명 스님들의 용맹정진 수행처이자 외호 대중들의 야단법석 기도 · 수행처로 자리매김했다. 매일 1000명 이상의 사부대중이 상월선원을 찾는 등 한달 동안 5만여 불자들이 상월선원을 찾아 외호 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조계종의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외적 인프라 확대를 위한 외형적 불사라면 상월선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위례천막결사'는 한국불교 수행 · 신행문화 증진을 위한 내부적 불사이다.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성패에는 불자 대중의 보시 동참이, '위례천막결사' 역시 외호대중의 힘이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2019년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불사와 결사가 시작됐다. 2020년에는 화합된 사부대중의 힘으로 두 불사와 결사가 완성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기자칼럼

자비행, 행복의 지름길

노덕현 취재부 차장

최근 '인천 장발장'이란 용어가 SNS와 포털사이트 등의 인기검색어에 떠올랐다. 지난 10일 인천의 한 마트에서 배고픔에 못 이겨 우유, 사과 등 1만원 가량의 식료품을 훔친 기초생활수급 3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 얘기다.

'장발장 부자'의 마트 절도 사건은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훈훈한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해피엔드로 마무리 됐다.

당뇨 때문에 일을 못해 굶주린 아버지가 우유와 과일을 훔치다 잡혔고, 사정을 들은 마트는 이를 용서해줬다. 사정을 들은 경찰은 근처 식당에서 국밥을 대접했다.

당시 경찰이 언론인터뷰에서 "요즘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라며 왈칵 눈물을 쏟는 모습은 보는 이들까지 가슴을 아프게 했다. 게다가 옆에서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이 돈 봉투를 말도 없이 전해주고가 화제가 됐다.

장발장 부자의 스토리가 감동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체감하는 세밑 추위가 거세기 때문이다. 밥 굶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 아직 많다. '어디 있냐'고 한탄하는 경찰의 말은 '사람이 밥은 굶지 않아야 하지 않냐'는 애절한 외침의 다른 말이다.

연말 취재를 위해 나선 창신동 쪽방촌과 영등포 쪽방촌, 그리고 광화문 노숙인 쉼터 등에서는 예전과 달리 어려움이 많다는 말이 많았다.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예전보다 얼어붙은 듯하다. 물질적인 후원 감소보단 직접적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봉사자가 줄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장발장 부자의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한다. 바로 사람의 감정은 전염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2019년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감정은 감기처럼 전염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한 감정의 사람과 접촉했을 때 전염 확률이 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치 장발장 부자를 대한 마트 주인의 자비심이 경찰에게, 그리고 경찰의 언론인터뷰가 또 다른 후원자에게 전염되듯이 말이다.

즉 자비심도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된다. 사회의 따뜻한 정이 조금은 줄었다는 말을 들을 때, 그저 세상 탓으로 돌리기엔 무엇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이른바 '자비 바이러스'의 매개체인 언론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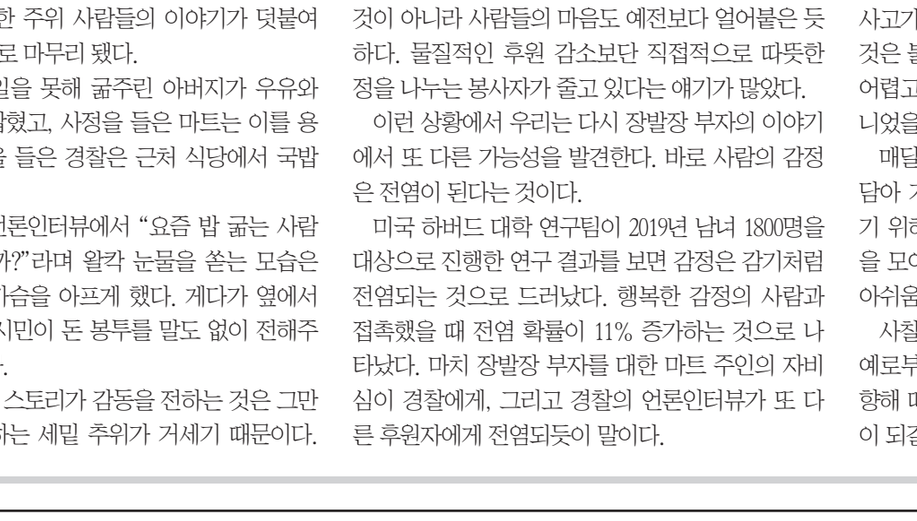
올 한해 불교계 기사를 되돌아 보면 수많은 사건사고가 있었다. 이중 불자들 마음을 훈훈하게 만든 것은 불교 교세 확대나 제도 개편 등이 아닌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불편한 이웃을 보살피는 미담이 아니었을까.

매달 100만원씩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봉투에 담아 기부한 익명의 보살 이야기, 독거어르신을 돕기 위해 매달 부모님 심부름을 하며 저금통에 용돈을 모아 전한 아이들의 이야기 등 미처 전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사찰 주변에는 장발장 부자와 같은 이들이 많다. 예로부터 말이다. 불자의 한명으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따뜻한 마음 속의 정을 행하는 그런 날이 내일이 되길 기원하며 새해에 임하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강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